社 說

끝이 아닌 자기 확대의 과정 삼아야

— 제42회 학위수여식에 부쳐

졸업은 처음과 끝의 의식으로 흔히들 생각한다. 화려한 대학시절의 끝이며 새도화된 사회적 삶의 시작이다 라는 식으로.

부지불식 중에 끝이라는 어감 속에는 신입생 시절에 각오하던 자유와 진리라는 의미가 끝나며, 제도화된 윤리관과 생계의 투쟁이 시작된다. 본관 앞에서 밤새워 붓던 출간 앞에서 시국과 정치와 경제와 외교의 오류를 고통하던 손은 이제 잠리어 나가고, 3D현상과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현실적인 의수가 달리게 된다. 새벽녁까지 단나던 예결과 마르크스나 브루스 커밍스와 김용옥같은 삶의 스승들은 박스 안이나 책상 안에서 지적 과시용으로 바뀌고, 거기에 처세술이나 오너 드라이버를 위한 서적이 주인 행세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졸업생 개개인들에게 책임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질과 수준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처세와 과장과 불로 소득과 편법이 지배하는 한 단면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학문과 진리탐구와 비판의 공간이 괄호라는 수학 기호에 의해서 영원히 닫히게 되고, 추억이라는 말로 혹은 행복했던 시절이라는 말로 혹은 관용이 있던 시절로 생각되고 만다.

교문을 나서는 것이, 다시는 학문과 진리탐구와 비판의 공간의 괄호를 풀거나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불건전한 사회의 소시민이 되려고 스스로 자기최면을 거는 것이 될 뿐이다. 화려한 붓꽃은 대학시절을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고, 규격화된 졸업장은 소시민임을 자각하는 것일 뿐이다.

위안과 소시민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졸업생들은 자기 삶의 자각이라는 시점을 떠올릴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대학 시절에 유행했던 한 여구를 떠올려 청년이 우뚝 서야 조국이 산다 란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우뚝 선다란 말은, 아마도 몸과 마음의 긴장감과 강인함을 나타내는 의미일 것이다. 구부정하게 걸어다니거나 비뚤게 생각해서는 우뚝 설 수 없다. 우뚝 선다는 것은 우리의 지연 환경인 산과 들과 하늘과 땅을 바로 본다는 것이며, 우리의 사회 환경인 정치와 경제와 외교를 바로 읽어 내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바로 실천한다란 말일 것이다. 즉 건강한 사고와 강인한 실천을 정의라는 명제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것이 조국과 경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학문과 진리탐구와 비판의 공간의 괄호를 다시 푸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이 마음 속에 지녀야 할 것은 나는 경희인이라는 자부심이다. 경희는 바름의 고향이자 지와 이성의 뿌리다. 나의 정들고 낯익은 곳이자 세계관과 자아의 진정한 탄생지이다. 나의 이성이 태어나고 나의 지혜가 성숙하고 나의 세계관이 학문을 통한 검증과 자기 고통을 통한 확인에 의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졸업생들에게 묻고 싶다. 대학이 이러한 곳일진대, 대학의 졸업은 과연 처음과 끝인가. 혹은 지와 실천을 겸비한 자기 확대의 과정인가.

태어나지 않은 개혁을 위한 길 찾기

— 대학행정 공개 추세를 보며

대학의 예결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이 공개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이미 예결산 내용의 일부가 총학생회나 노조측에 전달됐고, 방학중에 있었던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회의' 내용이 담긴 '워크샵'이 일부 공개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기획안'이 오는 새학기 초에 모든 대학인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란다. 대학당국에서는 또한 홍보부를 홍보실로 격상시키고 홍보실장으로 하여금 모든 회의에 참석,일종의 '대학 대변인'으로 그자리를 매김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특히 철웅성으로란 인식돼오던 서울캠퍼스 기획실이 개방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비록 공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을 공개한다는 현재의 취지는 대학인의 일원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학행정의 비공개로 인한 많은 진통을 보아왔다. 행정의 비공개는 대학구성원들간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이는 매년 등록금인상를 협상과정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지루한 소모성투쟁으로 나타났다.

외국 대학의 사례를 보면 예결산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행정유 책자나 인쇄물로 만들어 공개한다. 그리고 이에대한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처로 찾아가 보충 설명유 듣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의 '감추기 교육정책', 이와 더불어 몇몇 사학재단에서 대학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학행정의 비공개 원칙이 이어져오기 시작했다.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다. 세계가 개방화라는 물결에 휩싸여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김영삼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개혁의 대상에 올라있고, 대학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개방은 즉 시대적 조류다.

물론 봇돌이 터지듯 모든것이 한꺼번에 공개될 순 없다. 대학내 구성원들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내용이거나, 공개돼서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의 원칙이 지켜지거나 구성원들간의 조정이 있은 후에 공개되어야겠다. 그러나 회의록마다 '대외비'로 정해놓고 품안에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개시켜 좋을 것 없다'는 사고로 신문기자만 보면 피하려드는 '기자 컴플렉스'도 이제는 구시대적 착상에 지나지 않는다.

첨예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공개하라. 그리하면 구성원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나만의 대학이 아닌 모두의 대학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면 대학의 대외개방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대학개혁 또한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을 것이다.

공영일 교수

존경하는 학원장님, 내외 귀빈과 학부모님, 그리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42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면서 영광의 학위를 얻게된 졸업생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기울여온 노력과 인내는 참으로 값진 것이었고 여러분을 성원하고 격려하여온 여러분의 가족, 스승,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따뜻한 사랑과 우정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의 영광을 있게 했고 그래서 그 영광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하와 격려의 외마는 단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스승, 친지들의 각은 윤타리에 힘겨되지 않고 우리의 사회, 국가, 그리고 인류세계를 향한 축하와 격려의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어느 대학과도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우리 경희의 요람에서 말올리며 지성과 학문을 닦아 왔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빛나는 교시아래 45년의 역사를 통하여 계승되어온 창조적 정신과 불굴의 투혼을 길러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의 영광의 학위 취득으로 문화세계 창조를 위한 참된 일꾼의 능력을 인정 받아 사회의 일터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어찌 자랑스럽고 경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류세계 향한 의미담아

"먼저 앞장서는 일꾼이 되자"

끊임없는 자기성찰 이뤄야

오늘의 우리 사회는 민족번영과 발전을 위한 개혁의 실천과 세계화의 추구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환경보호와 세계평화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지식과 인격을 갖춘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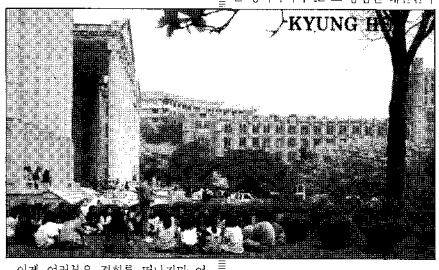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전문지식과 인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문지식과 인격이외에도 창조적 정신과 불굴의 투혼을 지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와 사명이 그 어느때 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까닭입니다.

◇총장치사

니다.

오늘 이 학위수여식에 서 있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은 우리 경희가 자랑스럽게 길러온 바로 그 인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 분야의 선두에 서서 땀흘리며 일하고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진솔직스러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여러분은 출선해서 괄을 걷고 나서며 다른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등을 누드리고 괄을 이끌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간 우리 경희 선배들이 담당해온 역할이었고 여러분들이 경희선배와 더불어 이어갈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떠나는 여러분에게 세삼 당부의 말은 필요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사회로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이 자리이기에 여러분에게 우리 경희 정신의 한가지만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잘것 없는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스스로 삐뚤어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먼 미래의 크고 높은 뜻을 향하여 당당하고 진취적이며 끊임없는 자기성찰의 성실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희를 떠나지만 여러분과 경희는 너욱 굳건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남기는 자욱마다 경희의 이름을 빛낼 것이며 경희의 끊임 없는 발전이 여러분에게 힘을 더 해줄 것입니다.

우리 경희에게도 적지않은 도전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경희가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우리 경희도 재단과 동문, 교직원,

◇학원장격려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모든 경희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높은 이상을 가슴에 안고 오늘 정든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커다란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참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국제화, 민주화, 인간화, 개방화의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시대에 돕입하였습니다. 물론 살벌한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우리의 뜻을 펴고 더 나아가서 내조국을 발전시켜서 21세기 인류사회에 향도적역할을 다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 조국을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20여년전부터 인류문명의 중심은 구라파, 미국을 지나 아태지역으로 옮겨오고, 다가오는 21세기는 바로 우리 한국이 자리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로 중심이 옮겨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람있는 시대에 역사상 처음으로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동북아시아 또 그 중심인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보람과 긍지를 잊지라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여러분에게 국제지향적인 사고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구촌, 인류가족, 세계공동체를 바라보며 평화지향적인 지도자중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강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동문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시대조류와 국제감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줄것을 당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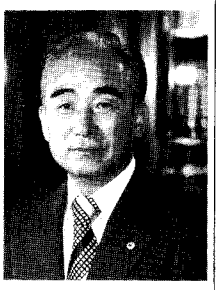
여러분의 모교 역시 모든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대학, 대학중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희가족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이미신문지상에보도된바지만 계작년, 작년의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과, 기계공학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서울·수원 공히 우수교 평가를 받아 제인들의 인식을 새롭게 했던 점은 그야말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95년도에 있을 대학종합평가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수평가를 받기 위해서 총장이하 모든 교수·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미 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도 개혁에 솔선하고 모든 경희역량을 총집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터이기에 우리가 바라는 대망의 목표는 기필코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가 성사될 때 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경희동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졸업생 여러분들의 활동에 큰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참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경희인의 굳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단과 학교는 하나라는 의식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희의 국제화를 위해서 지난 40여년간 단연 선두에 서서 세계의 저명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학교육계를 선도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방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세계속의 경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반전을 기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조영식 박사

동북아시대 지도자 되어야

인류사회 향도적 역할 다하길

오늘 우리세계는 물질문명의 한계점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도덕이 무너진 가운데 온갖 물질문명의 여파속에서 갈갯 몰라 방황하는 인간부재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우리 경희가 그러했듯이 이 미증유의 위기도 우리 경희가 앞장서서 헤쳐나가야 하고 또한 우리 경희인이 앞장서서 인류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양심의 등불, 인류사회에 도덕을 재건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밝은사회, 제2의 르네상스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비록 몸은 경희를 떠나지만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경희가족으로서 이 거대한 세계적 운동에 기꺼이 동참하여 동방의 밝은 등불을 켜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창조하는데 함께 떨쳐 나서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의 학위증을 가슴에 안기까지 뒤에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뒷바라지를 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참다운 진리를 터득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정을 다해 가르쳐주신 교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찬사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전 경희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61

시사영어학원의 강의는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시사영어학원®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새모습, 새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너머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겠습니다.

TOEIC
TOEFL L·C
AFKN News & Drama 청취반
미국어 HEARING
TIME·한국관련기사반
영작문
영어회화 한인·미인
WRITING SEMINAR

일어문법·독해·회화
일본어 능력시험대비반
일본인회화
러시아어문법·독해·회화

TOEFL·영어순해
Korea Herald사설
VOCAB 22000
거로 VOCAB
상문종합영어 기본영어
MAN TO MAN기본영어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대학원진학반
통역대학원전문반

주말특별반

대표 734-2442 종로2가 종로서적 뒤